

# 대홍수, 그 참담한 기억과 드러내기 힘든 근친혼

글 |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물과 인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때로는 물 때문에 번성하고, 때로는 물 때문에 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남다른 의례와 신화들이 발생한다. 인류의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도 물이 지닌 가치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물에 얽힌 이야기, 그 첫 장을 여는 데 아득히 먼 옛날에 일어난 불행한 물의 신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7~8월은 풍수재해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이 큰 시기이므로 이번호에서는 홍수에 관한 국내·외 설화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무지개의 언약은 참담한 기억 속에 내장된 슬픔

신이 인간에게 약속한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지개의 언약'이다. 무지개의 언약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창세기 9:11)'라는 여호와와의 장엄한 약속을 가리킨다. 흔히 '노아의 방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홍수를 통해 인류를 멸하고 노아의 가족과 육축만을 살려준 그때의 일을 들려주고 있다. 인류의 멸망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신도 후회했는지 여호와는 무지개의 언약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띄웠던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의 언약은 언약한 짐승에 불과한 인간에게는 참담한 기억을 포장한 아름다운 슬픔이며, 인류문명사로 볼

때 신과 인간이 화해를 이루는 신인합일(神人合一)의 고매한 구원이다. 어디 이뿐이라. 무지개의 언약은 죄악으로부터 회생한 한 줄기 서광이며, 멸망에서 구원된 생명의 씨앗이다.

하지만 무지개가 아무리 곱다 해도 사건 저 편에 감춰진 속내를 감출 수 없다. 참담하고 몸서리쳐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인류의 시조가 재출현하며, 이에 대한 신화론적 설명을 담담하게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무지개 저편에는 근친혼의 금기도 얼룩져 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 좇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창세기 9:16~19)

성서를 읽은 이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작 눈여겨보지 않은 대목이 있다. “노아의 세 아들로 좇아 백성이 퍼졌다!”를 다시 보자.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 온 백성이 이 땅에 퍼졌다는 것인데, 이는 다름 아닌 근친혼(近親婚)의 다른 표현이다. 흔히 근친혼은 팔촌 이내의 일가붙이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을 말한다. 사십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린 비 때문에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으니(창세기 7:21), 대홍수 이후의 생존자는 여덟 명인 셈이다. 노아의 부부 2인과 세 아들과 세 자부 6인을 합하면 모두 8인이기 때문에 온 백성으로 퍼져 생육하려면 노아의 손자대에서는 근친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 마땅히 근친혼이어야 ‘세 아들로 좇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때, 인류의 재출현에는 그리 몇몇하지 못한 아픔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이를 부정적인 용어로 근친상간(近親相姦)이라 한다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테베(Thebes)의 영웅 오이디푸스의 고통을 연상시킨다. 이것이 인류의 무의식에 내장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의 한 모습이 아닐까.

### 세계 도처에서 전승되는 대홍수 사건들

인류의 재출현에 관한 구약의 기록이 사실 유일신관을 근거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건의 흔적은 세계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다. 이들은 인류가 대홍수에 의해 모두 죽고 살아남은 남녀와 함께 새로운 인류가 전개된다는 내용을 주지로 한다. 대홍수를 테마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홍수 전설 또는 대홍수 설화라고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창세 신화의 일종인데, 대표적으로 구약성서의 ‘노아의 홍수’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이 일어났다.

영국 국립박물관의 조지 스미스가 점토판을 해독하던 중에 ‘노아의 홍수’와 흡사한 이야

기를 찾아낸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바빌로니아의 서사시 <길가메시>였다.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가 히브리인들의 독창적인 이야기로 알려진 까닭에 점토판에 기록된 대서사시 <길가메시>의 발견은 세상 사람들을 충분히 놀라게 했다. 결국 노아의 홍수 이야기 역시 바빌로니아의 신화에서 온 것임이 드러났다. 길이가 무려 3천행이나 되는 대서사인 <길가메시>는 노아의 홍수에 버금가는 서사 내용을 담고 있었고, 계속된 연구에 의해 이 신화의 기원이 수메르 신화에까지 맞닿아 있음도 밝혀졌다.

세계 여러 민족들 사이에 전승되는 대홍수 설화는 성경의 기록과 더러는 크게 다르기도 하지만 홍수와 인류의 멸망, 그리고 살아남은 자에 의한 인류의 존속이라는 사건의 주지는 동일하다. 어쩌면 인류가 체험했던 ‘아득한 그 때의 사건’을 공유한 경험이 원초적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세계 여러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사건의 유사성과 세계를 설명해내려는 의식의 보편성에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에도 단편적이기는 하나 홍수에 대한 원초적 기억을 전하는 몇 편의 이야기가 있다. 대홍수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한 소년만이 나무를 타고 살아남아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목도령 이야기(나무도령 이야기)도 있고, 최후의 생존자인 남매가 혼인하여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대홍수와 남매> 이야기도 있다. 이 가운데 남매 이야기는 대홍수 신화가 지닌 대의(大意)와 함께 무지개의 언약에 담긴 근친혼의 무의식적 기억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옛날 이 세상에 큰물이 져서 세계는 바다로 변하고 한 사람의 생존자도 없게 되었다. 그때에 남매 두 사람이 겨우 살아남게 되어 높은 산의 상상봉에 표착하였다. 물이 걷힌 뒤에 남매는 세상에 나왔으나 다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만일 그대로 있다가는 사람의 씨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오누이 간에 결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남자는 수맏(수맏돌)을, 여자는 암맏(암맏돌)을 짚어지고 두 산의 봉우리로 올라갔다. 양쪽 산봉우리에서 남매는 각자의 맏돌을 굴러 내리고 하늘에 기원하였다. 얼마 뒤에 산에서 내려온 남매는, 암맏과 수맏이 일부러 포개놓은 것처럼 합쳐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하느님의 뜻이라 짐작하고 결혼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사람의 씨는 이 남매의 혼인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의 인류 역시 이 남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대홍수에 살아남은 남매가 차마 혼인할 수 없어서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맏돌을 굴렸다는데, 맏돌이란 무엇인가. 맏돌은 곡식을 가공하는 연모이다. 쓰임새로 볼 때 곡식을 가공한다는 점에서 농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구다. 결국 이 이야기는 농경시대를 배경으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맏돌이 암맏돌과 수맏돌로 구성되었다는 모양새로 보아 일종의 성

상징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여자는 암망을, 남자는 수망을 각각 짊어지고 산을 올랐고, 굴린 맷돌이 포개졌다는 점에서 성적 결합을 뜻한다. 맷돌을 굴린 행위야말로 남매의 성적 결합에 대한 신탁을 얻기 위한 신화적 장치임이 드러난다. 맷돌을 짊어지고, 굴리고 하는 행위가 다소 희화적이지만 근친상간에 대한 두려움과 금기를 해소하고 자손을 남기려는 본능적 의지는 치열하면서도 가히 눈물겹다.

이야기에 따라 맷돌만 굴리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남매가 산에 올라 불을 피워 연기가 합쳐진 것을 보고 혼인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맷돌도 굴리고, 연기도 피워본다. 연기를 피워 올린 것도 영혼과 육신이 한 동아리가 되었음을 뜻하는 성적 결합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처럼 신의(神意)를 거듭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행위가 중대하다는 것이고, 근친상간이야말로 최대한 피해야 하는 금기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홍수 이야기에서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내세워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서와는 다른 설명이고, 오히려 지극히 인간적인 변명이 아닌가 한다.

## 물의 정화력과 생명력

이와 비슷한 다른 이야기에서는 대홍수의 원인을 '겉핥하면 싸우고 아우성'인 인간의 죄악으로 설명하고 있다. 타락한 인간을 징벌하기 위해 홍수를 내렸다는 뜻인데, 이는 물이 지닌 정화력에서 비롯되는 종교적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남매를 통해 재생하는 인간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는데, 이는 물을 통한 개체복제(個體複製)의 한 양상인 셈이다.

대홍수를 둘러싼 이야기에서 물은 무엇인가. 인간은 본디 자궁의 양수에서 비롯되었고, 삶과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이다. 예로부터 동서(東西)를 가리지 않고 물에 대한 외경적 가치가 형성되고, 신화를 통해 전승해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가히 물의 신화라 함직하다. 대홍수 설화도 바로 이런 물의 신화이다.

대홍수 설화에 등장하는 물은 자궁의 물과 같은 원수(源水)에 버금간다. 그리고 혼돈에서 새로운 질서로의 재생과 변역을 뜻하는 상징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야말로 우주 재생의 바로 그 순간과 그 순간의 혼돈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전 인류의 무의식에 내장된 대홍수 설화는 바로 이와 같은 물의 이미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대홍수 이야기는 이처럼 아찔한 이야기지만 무지개와 함께 또 하나의 교훈을 던졌다. “물을 기억하는 자 변역을 이룰 것이되, 물을 홀대하는 자 파멸에 이를진저.” ㉞